



미국 LA/LB항 PierPass제 7월말 본격 운영 항만적체와 대기오염을 해소목적으로 도입 야간 터미널게이트 이용 교통부담금 면제

지난해 극심한 항만적체를 경험했던 LA/LB항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중인 PierPass제도가 7월말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LA/LB항만당국은 PierPass제 운영에 앞서 지난 5월23일부터 하주와 육상운송회사 등을 대상으로 PierPass홈페이지(www.pierpass.org)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PierPass제는 LA/LB 항만당국이 항만적체와 대기오염을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사전 등록을 하고 Off-Peak 시간대(야간 : 오후 6시-오전 3시, 주말 : 토요일 오전 8시-오후 6시) 터미널 게이트를 이용할 경우 교통부담금(Traffic Mitigation Fee ; TMF)을 면제해준다.

LA/LB항만당국은 7월 중순 PierPass 시범서비스를 개시해 7월말부터는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며 Off-Peak 시간대를 이용하지 않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시범서비스 기간에는 TEU당 20달러, 7월말 이후에는 TEU당 40달러, FEU당 80달러의 TMF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내수용 컨테이너 화물이나 철송을 이용하는 화물, LA항과 LB항을 연결하는 화물전용철도

노선(Alameda Corridor)을 이용하는 화물, 공컨테이너 및 사시, 환적화물 등은 TMF가 부과되지 않는다.

LA/LB항만당국은 터미널 운영사들이 PierPass제를 시행하기 위해 게이트운영시간을 연장운영 해야하기 때문에 연간 1억 5600만달에서 1억 6000만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비용마련을 위해 TMF를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PierPass 제도의 등록과 이행을 담당하고 있는 브루스 왈고(Bruce Wargo) 사장은 모든 항만 이용자들은 고시된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해야하며 이번 등록과 PierPass 제도의 이행은 항만적체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항만 이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브루스 왈고 사장은 현재 LA/LB항의 수출입 화물 중 7% 만이 Off-peak시간대를 이용하고 있으나 PierPass 도입후 1년내 Off-peak시간 이용 화물 비중이 20%까지, 3년이후 40~45%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선협, 차기회장 스즈키 MOL 회장 내정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 6월15일 취임

일본선주협회는 5월25일 정기이사회에서 차기 회장에 쿠니오 스즈키 부회장(MOL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스즈키 회장은 6월15일에 열리는 제58차 정기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선임되어 취임한다. 회장직 임기는 2년이며, 부회장직은 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이 지명할 예정이다.

스즈키 회장은 1962년 와세다 대학을 졸업했고, MOL에 입사, 1994년 상무, 1995년 전무, 1998년 부사장, 2000년 사장, 2001년 선협 부회장을 거쳐, 2004년에 회장에 취임, 현재까지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